

도올 김용옥 “교육은 진정성과 간절함 있어야”

해남 가학산서 열린 '전남인재학당' 수료식...배움·노력 강조 전남도 “도올서원” 경험·노하우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할 것”

“성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어려운 일입니다.”

도올은 지난 10일 '전남인재학당' 수료식(승당례) 서두에 '배움'과 '노력'을 강조했다. 해남 가학산서양림 강의실을 가득 채운 고등학생 제자, 전남도 및 해남군 관계자, 동네 주민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상가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들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4박5일을 보낸 전남 인재 62명은 그동안의 소회를 담은 승당사 낭독, 논어의 구절을 담은 연극으로 승승의 가르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중흥에 나오는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惇慝), 명변(明辯), 독행(篤行) 등으로 5개 반을 구성하고 서로 배움을 경쟁했다. 이날 학생들은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13구절을 외워 발표했으며, 목표영흥고 3학년 박창현군은 '학이편' 전체를 암송해 큰 박수를 받았다.

광양중과 2학년 김우진양은 “평소 존경하는 도올 선생님에게 인문학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논어는 고리타분한 고전이 아니

라 정서적 가치를 가진 소중한 책”이라고 말했다. 졸업식에 참석한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등도 학생들과 함께 졸업장에 해당하는 승당에서를 받았다. 도올이 이번 학당에 쏟아준 노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학생들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이곳 해남에서 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며 “해남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도올 선생이 자주 발걸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연극, 암송 등을 지켜보던 도올은 첫자를 읊어주고, 틀린 부분은 바로 잡아주면서 “좋았어”라고 기운을 북돋워줬다. 그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삶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 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올은 졸업식을 찾은 청중들에게 자신이 가장 자부하는 논어의 한 구절을 설명하기도 했다. 학이편 제일 마지막 줄인 ‘불환인지불지 환부지인야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로,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미래리더를 위한 인문학 캠프 「전남인재학당」

지난 10일 해남 가학산서양림에서 '전남인재학당' 수료식(승당례)을 마친 도올 김용옥 선생,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졸업생, 각계 인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올과 그 제자들은 졸업식 후 학생들과 일일이 작별인사를 한 뒤 귀경길에 올랐다. 도올은 “저음 학생들이 어려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상담해주며 하나 하나 다독였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깨우쳐 다행이고,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육은 애타는 진정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그런 간절함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번 도올서원을 치르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전남 인재학당'을 전남 대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에서 가장 먼 해남에서 도올과 지역 인재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며 “이 프로그램이 전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에서 가장 먼 해남에서 도올과 지역 인재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며 “이 프로그램이 전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수어통역센터 갈등 논의 시·의회·농아인협 'TF' 구성

폐쇄 우려를 낳고 있는 광주 수어 통역센터의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할 논의 기구가 구성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시의회, 농아인협회, 복지관, 수어 통역 서비스 등 관계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어 통역 서비스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정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TF에는 광주시, 시의회, 농아인협회 관계자와 수어 통역사 대표(노조원과 비노조원) 등이 참여한다.

수어 통역 서비스 관련 갈등은 2014년 7월 수어 통역센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센터 운영 주체인 농아인협회와 통역사 간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변했다.

농아인협회는 수어 통역센터 폐쇄를 의결하기도 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 세부 사항과 농아인 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합의해 장기간 지속해온 농아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

이용섭 시장, 페이스북에 해명 ... “광주시민에 송구” 사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신의 동생과 공무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업의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되풀이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민간공원 수사 결과의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 행정이자 소신 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며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의혹 제기에도 진실 규명을 앓거나 평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특혜이고,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생은 2017년 3월 D 철강을 설립했고 4월 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때 제는 무직

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5월 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수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검찰은 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5점)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외해 사업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감점 대상이 아니다”며 “실령 감점이 적용되더라도 경쟁 기업과 이미 5점 이상의 격차가 있어 사업자 선정 순위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켜 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호반건설로부터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시장의 친동생도 기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

65세 이상 인구 800만명 돌파...고령 39.8% 고령화 가속

평균연령 42.6세...주민등록인구 5천185만명 '제자리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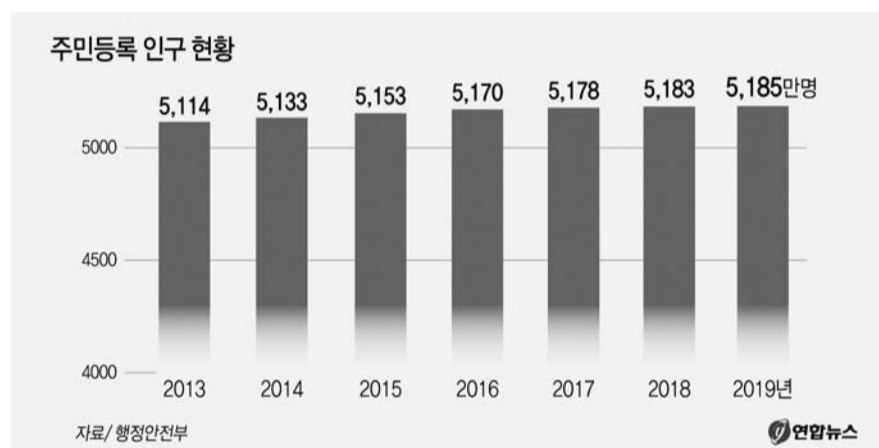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고 평균 연령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38.9%였던 고령지역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지난해 말 39.8%로 상승, 전남지역 최초로 40%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전년도(5182만6059명)보다 0.05%(2만3802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과 증가인원 모두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지난 2018년에 0.09%(4만7515명)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번엔 다시 역대 최저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고령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 6507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802만6915명)는 2008년 처음으로 10%(506만9273



명)를 넘어선 뒤 625만명(2013년·12.2%)→735만명(2017년·14.2%)→802만명(2019년·15.5%) 등으로 매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평균연령도 42.6세로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에 40세, 2018년(42.1세)에는 42세 선을 넘었다.

초고령화사회인 전남의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1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2.0%에서 지난해 말 22.6%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고흥(39.8%), 보성(37.3%), 함평(35.2%) 등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평균연령도 전남은 46.2세로 전체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광주(2868명), 전남(1만4225명)을 비롯, 부산, 대구, 전북, 대전 등 12곳의 인구가 줄었고 경기, 세종, 인천, 충북 등 5곳은 인구가 늘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 특보 1년 임기 만료 사임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을 이끌며 지역 노동계와의 가교 역할을 한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2급 상당·전문 임기제)이 취임 1년 만에 물러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1년 임기가 만료되는 박 특보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혀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임기제 공무원직인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박 특보의 사임에 따라 광주시가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참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임용 이전의 비위 문제로 물러난 하희섭 노동협력관(개방형 4급)도 4개월 만에 사직했지만, 후임 지원자가 없어 공무원이 자리를 맡고 있다.

사임 의사를 밝힌 박 특보는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와 노동계의 창구 역할을 하며 투자 협약을 끌어냈다. 박 특보는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재임 시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취지로 한 ‘노사 상생 도시’ 사업을 이끌어 왔다. /최권일 기자 cki@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동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52-0175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운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담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에게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돌고개역인접 소규모 2층 주택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총용 1억3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점 378㎡ 장기투자용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남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화순 농성면 소재지 2612㎡ 전원생활최적지 2억7700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천리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령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참고 다세대 등 다용도 건물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내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403㎡ 가게 197㎡ 카페용·편의점 적합 1억3500
- 서석동 조대앞 4층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참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 47㎡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점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인근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카페용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함평 해보면 14072㎡ 농장 등 적합 4억2천 조건가격은 상의함
- 목포대 부근 정계면 도림리 2층주거지 4413㎡ 강릉 5억7천 농합 4억3천 매도 1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파 상가건물·원룸·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